



1. 제약/바이오 – 주간 제약업종 지수 현황

- ▶ 지난 한주간(9월 12일 ~ 9월 18일) 제약업종 지수는 전주대비 6.5% 상승하였고 KOSPI 수익률대비 5.4%pt 상회
- ▶ 주간 주가 수익률은 셀트리온이 가장 높은 9.5%, 휴젤이 가장 낮은 -5.5%를 기록
- ▶ 관심종목으로는 점진적인 회계이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수앱지스를 추천함.

2. 산업관련 주요 이슈

- ▶ 메디톡스, 보툴리눔 톡신 '이노톡스' 미국 계획 내놔 (<https://bit.ly/2NMu0jZ>)
 - 엘라간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'니보보툴리눔톡신 A'(이노톡스)를 '22년 출시하겠다고 밝힘
 - 엘라간은 2013년 메디톡스로부터 이노톡스의 미국 내 독점 판권을 매입했음
- ▶ 올릭스 "2019~2021년 라이선스 아웃 4종 목표" (<https://bit.ly/2NPzkD7>)
 - 올릭스는 18일 기업설명회(IR)에서 총 4개 물질을 글로벌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게 목표라고 밝힘
 - 비대흉터치료제를 선두로 단계별 임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2상, 영국 1상 진행되는 내년을 LO 시점으로 잡음
- ▶ 셀트리온, 테바 편두통 신약 생산 미국 FDA 승인 (<https://bit.ly/2MDNTVM>)
 - 셀트리온이 테바 편두통 신약 아조비(AJOVY)의 위탁 생산 제품에 대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음
 - 앞서 지적됐던 셀트리온의 생산 시설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

제약/바이오 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변동

기업	시가총액 (십억원)	주가 (pt, 원)	주가 Performance (%)					
			1D	1W	1M	3M	6M	YTD
KOSPI	1,493,632	2,309	0.3	1.1	2.8	-2.8	-7.4	-6.4
제약/바이오	177,193	16,346	1.0	6.5	16.1	5.6	-4.6	14.3
셀트리온	37,681	300,500	-0.7	9.5	14.3	-1.5	-7.3	35.9
삼성바이오로직스	33,546	507,000	4.3	8.7	10.7	24.4	13.2	36.7
셀트리온헬스케어	13,912	99,000	0.0	6.8	9.9	-12.5	-9.3	-8.8
한미약품	5,727	503,000	1.4	2.9	15.9	17.1	-1.6	-13.9
유한양행	2,888	236,500	-1.3	-1.7	4.7	4.7	10.8	8.0
메디톡스	3,773	667,000	-2.2	-3.3	4.3	-9.4	5.3	37.6
휴젤	1,798	412,500	-2.1	-5.5	-7.8	-21.4	-28.3	-26.3
대웅제약	2,236	193,000	1.1	-2.8	1.6	2.1	0.5	17.3
SK케미칼	974	84,100	-2.4	-5.3	2.6	-9.6	-23.9	-21.8
동아에스티	874	103,500	0.0	-1.4	3.7	12.8	-4.2	3.9

자료: SK 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3. 국내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9.12 ~ 2018.09.18)

- ▶ 메디톡스, 보툴리눔 톡신 '이노톡스' 미국 계획 내놔 (<https://bit.ly/2NMu0jZ>)
 -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'니보보툴리눔톡신 A'(이노톡스)를 '22년 출시하겠다고 밝힘
 - 엘러간은 2013년 메디톡스로부터 이노톡스의 미국 내 독점 판권을 매입했음
- ▶ 올릭스, 2019~2021년 라이선스 아웃 4종 목표 (<https://bit.ly/2NPzkD7>)
 - 올릭스는 18일 기업설명회(IR)에서 총 4개 물질을 글로벌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게 목표라고 밝힘
 - 비대흉터치료제를 선두로 단계별 임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2상, 영국 1상 진행되는 내년을 L/O 시점으로 잡음
- ▶ 셀트리온, 테바 편두통 신약 생산 미국 FDA 승인 (<https://bit.ly/2MDNTVM>)
 - 셀트리온이 테바 편두통 신약 아조비(AJOVY)의 위탁 생산 제품에 대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음
 - 앞서 지적됐던 셀트리온의 생산 시설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
- ▶ SK 바이오사이언스, 메르스백신 개발 중 (<https://bit.ly/2OtxTaD>)
 -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·메르스)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했음
 -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메르스 백신 개발 단계는 회사 측이 답변을 피해 확인하기 힘든 상황
- ▶ 휴온스, 자체개발 보톡스 100 억원 규모 중국 수출 계약 (<https://bit.ly/2MDBh0D>)
 - 중국 에스테틱 전문 기업 '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'사와 10년간 '휴톡스주'의 중국 독점 공급 계약 체결
 - 휴톡스주는 휴온스가 개발 중인 보톡스이며 현재 국내서 '미간주름 개선' 3상 중이며 내년 출시 예정임

4. 글로벌 제약/바이오 뉴스 (2018.09.12 ~ 2018.09.18)

- ▶ 애플은 스마트워치 최초로 심장박동센서 감지 기능 탑재 (<https://bit.ly/2D1gcOn>)
 - FDA로부터 애플 스마트워치는 허가를 받았으며 심전도검사(ECG) 기능과 낙상 감지도가 탑재됐음
 - 애플워치 판매가 확대될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IT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 할 것
- ▶ 구글·아마존·오라클 등 미국 의료 데이터 자유교환 선언 (<https://bit.ly/2D1gcOn>)
 - 구글과 아마존, MS, IBM, 세일즈포스, 오라클이 협력해 보건의료 분야 상호 운용성 장벽 없애겠다는 공동 성명
 - 각기 분리돼 있는 기술의 장벽과 클라우드, 인공지능(AI)을 활성화해 상호 운용을 하는 것이 협력의 주 골자
- ▶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 백혈병 치료제 Lumoxiti FDA 허가 (<https://bit.ly/2xe0IzA>)
 - 최소 두 가지의 치료 요법을 사용한 텔세포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허가됨
 -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허가를 하기 위해 EMA(유럽의약품청)와 논의 중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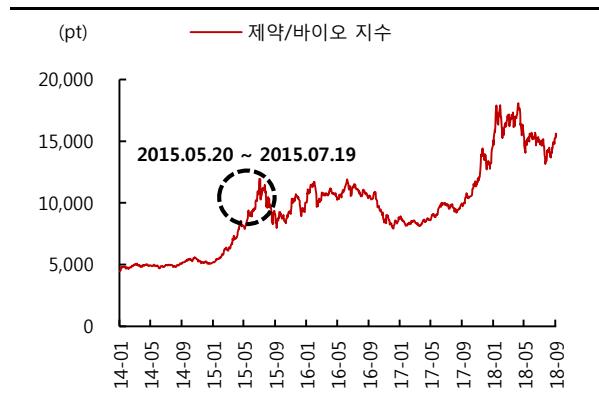


- ▶ 애브비의 휴미라 판매 내년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 (<https://bit.ly/2Nkf5y0>)
 - 올해 10월부터 4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유통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폭 확대 전망
 - 2019년에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총 10개가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정돼있음
- ▶ 엘리간, 보톡스 방어 전략으로 Bonti 1억 9천 5백만 달러에 인수 (<https://bit.ly/2NMMkcx>)
 - 엘리간은 Bonti가 개발 중인 임상 2상 보툴리눔 후보물질에 대한 글로벌 권한을 얻게 됨
 - 후보물질은 보톡스 보다 더 빠른 효과 반응이 나타나며 지속 기간은 더 짧음

5. 주요 공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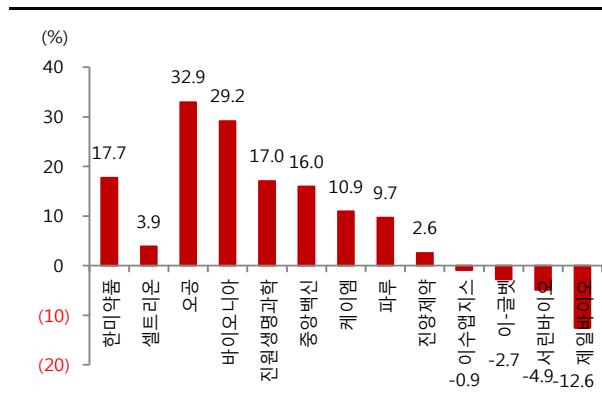
- ▶ 삼성바이오로직스 – 단일판매·공급계약 체결
 - 의약품 위탁생산계약, 계약상대: Immunomedics, 계약금액: 345.6억원, 매출액대비 7.40%

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제약/바이오 지수



자료: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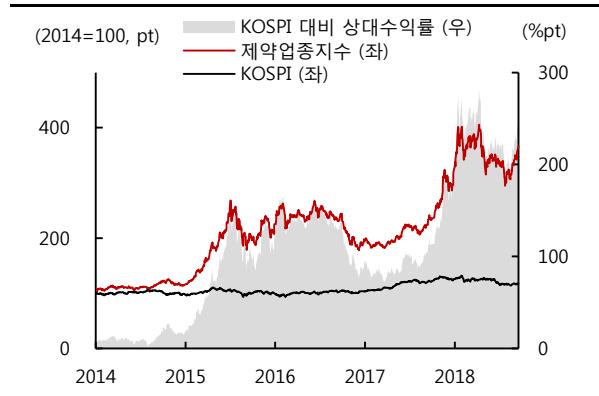
메르스 사태 당시 바이오 섹터내 관련주의 주가 수익률



자료: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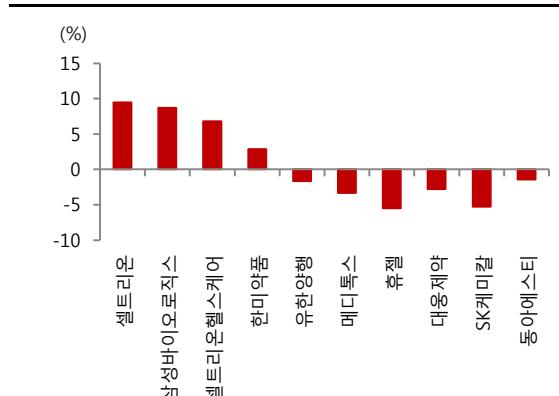
주. 기간은 2015년 5월 20일 ~ 7월 19일

제약/바이오 KOSPI 대비 업종 지수



자료: SK증권

커버리지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자료: SK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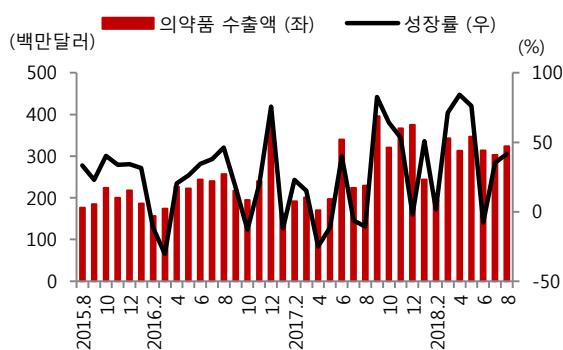
SK Pharma Weekly

제약-바이오. 이달미, 3773-9952

R.A. 이소중, 3773-99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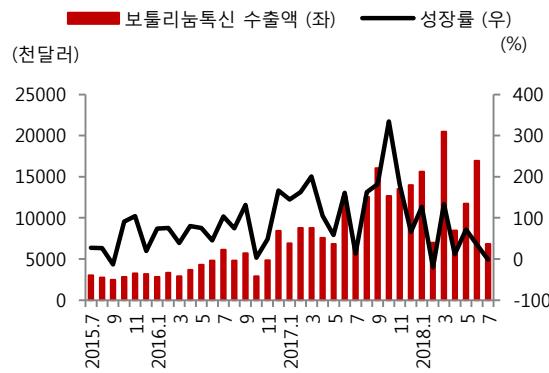
달미약국

국내 의약품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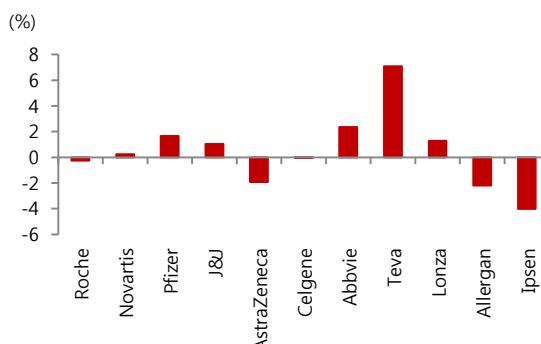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보툴리눔톡신 수출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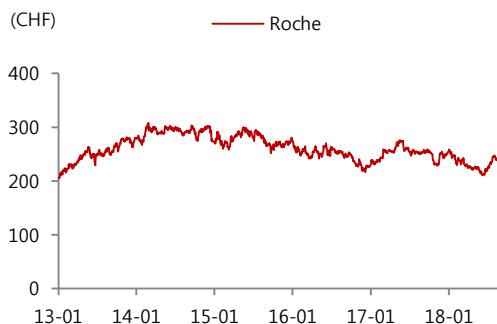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K 증권

글로벌 업체별 주간 주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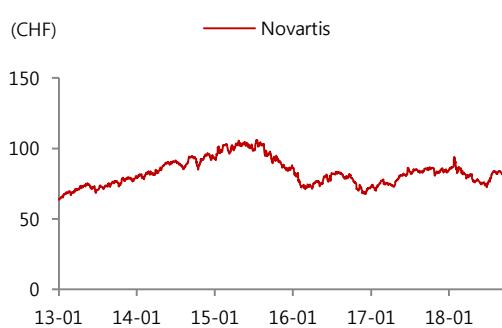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Roche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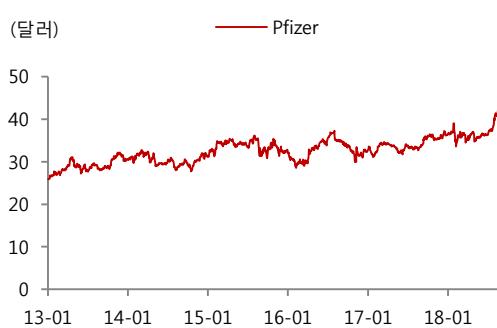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Novartis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Pfizer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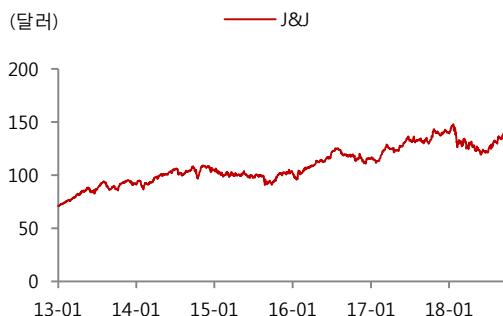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



J&J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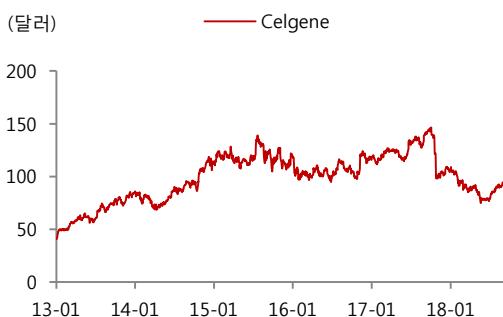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AstraZeneca의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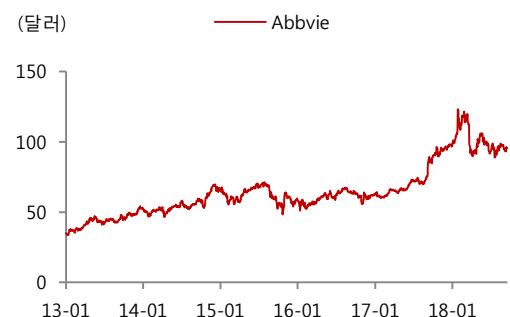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Celgene 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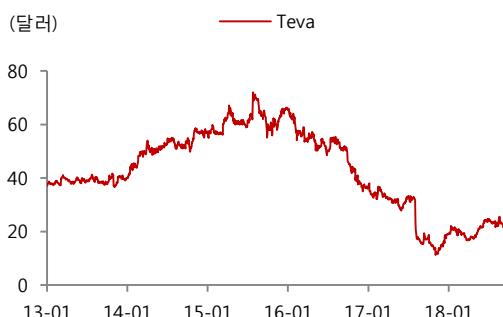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AbbVie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Tev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Lonza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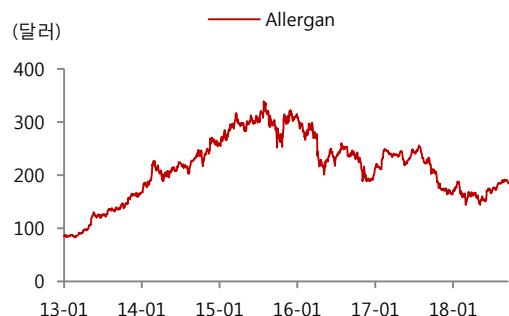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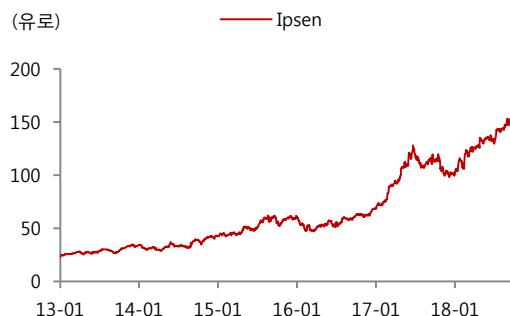


Allerga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Ipsen의 주가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SK 증권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